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

-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향 -

배소현*

김희수**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유학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문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이 무엇이며, 그 시행 결과는 어떠하였고, 미래 유학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을 활용했으며, 주요 문헌은 교육부 유학생 정책 보고서, 고등교육통계, 출입국 통계연보 등이다. 연구 결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2001-2007년에 추진된 유학생의 양적 확대 정책과 2008년 이후 본격화된 유학생의 질적 관리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유학생 정책의 시행에 따라 국내 유학생 유치 현황도 크게 변화하였다. 양적 확대 시기에 한국의 유학생 수는 8배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이 증가의 이면에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의 폭발적인 유입이 있었다. 이러한 증가에 비하여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와 부족하여 유학생 불법체류, 반한 감정, 졸업 후 취업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유학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변경하여 유학생의 검증과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결론에서는 향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 수립 시에는 정책의 영향력과 예상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라는 두 목표의 조화를 이루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유학생 유치, 유학생 관리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국경을 초월한 인적 교류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세계화는 전 지구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이 교육 영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고등교육 또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Knight (2004: 11)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국제적, 이문화적, 세계적 차원이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 전달 방법에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국제화가 촉진됨에 따라 각국의 고등교육은 개별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전 세계의 학생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전 세계의 기관들과 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써 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적자원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체제를 선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또한 다양한 국제화 전략 추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급격히 전개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세계적인 기준에 맞춘 대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무대에서 한국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우수 해외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고등교육 국제화 달성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정부 주도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1년이였다. 이후 정부는 Study Korea 프로젝트(2004),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2008), 그리고 글로벌 교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2010) 등 다양한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였다.

유학생 유치와 관리는 유학 희망자를 교육 기관에 모집하고, 입학한 유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각국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교육기관이 더 많은 수의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국제적 평판을 높이고, 현재의 교육체제를 개선하는 동기로 작용하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Nellis & Slattery, 2013; Wilkins, 2011).

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은 한국 고등교육의 인적자원 교류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정부 주도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1년 11,646명에 불과하던 국내 유학생 수는 2011년 86,878명으로 10년 간 약 8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그동안 양적 확대에 집중하던 정부의 유학생 정책 목표는 유학생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적극

적인 유학생 유치를 권장하던 한국 정부는 유학생 실태조사,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 노력이 계속되면서, 고등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유학생 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검토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김우중(2011), 박소영(2009), 박시홍(2011), 손희권(2012), 오수연(2009)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국내의 유학생 유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학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유학생 유치 상황과 유학생과 관련된 문제점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유학생 유치 확대 전략이나 유학생 만족도 향상에 치중하여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유학생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국내 유학생 관련 연구의 대다수가 유학생 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유학생 증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기에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유학생 숫자 증가가 이루어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발전적인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수차례 시행된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전개 과정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될 때, 새로운 정책의 방향과 세부 전략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다. 유학생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미래 상황에서 한국의 유학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전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 유학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실행된 한국 유학생 정책의 세부 내용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추진과 함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의 특징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학생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의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시행 결과는 어떠했는가? 셋째, 향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 분석의 검토 대상 자료는 유학생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통계자료, 학위 및 학술 논문, 논평과 신문 기사 등이다. 먼저 정부 정책 자료는 정책 수립의 주체인 한국 교육부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것으로 유학생 정책의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학생 통계자료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가 활용되었다. 이 자료들은 매년

국가 수준에서 수집, 관리되는 것으로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된다. 유학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실행 사례는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하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외에도 교육 논평,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하였다. 자료 수집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학생 정책”, “유학생 유치”, “유학생 관리” 등으로 검색 주제어를 한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별하였다.

II.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관련 선행 연구 검토

한국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전개와 함께 유학생 유치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차례 수행되었다.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유학생과 관련된 이슈들을 탐구하였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유학생 정책과 유학생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효율적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박소영(2009)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유학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유학생 유치 정책의 등장 배경을 국제화 추세에 맞는 대학 경쟁력 확보, 학령인구 변화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 유학 수지적자 심화, 국가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01년과 2004년에 추진된 유학생 유치 정책의 주요 목표와 실천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실천 방안이 대학과 연계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분석 외에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제시하고 유학생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유학 선택 배경이나 생활환경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유학생 정책과 유학생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유학생의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탐구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박시홍(2011)은 대학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특징을 시대별로 개괄하였다. 그는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주의 시대로 구분하여 각 정권별로 추진된 국제화 정책과 국제화의 흐름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국제화가 주요 정책 기조로 등장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적극적인 인적 자원 교류 및 유학생 유치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부터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유학생 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우중(2011), 손희권(2012), 오수연(2009)은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전략을 분석하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유학생 유치 전략 추진 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김우중(2011)은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의 유학생 유치 전략을 비교하였다. 연구자는 한국과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학 경비, 강의 충실도, 전문성, 평가제도, 취업 기회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설문 결과 강의 충실도, 전문성, 평가제도, 취업 기회 면에서 한국 유학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강화, 학사 관리 강화, 취업 여건 마련, 홍보전략 수립을 통하여 한국이 유학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손희권(2012)은 유학생 유치 확대의 사회적 배경을 짚어보고 유치 확대를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유학생 유치 확대의 방향으로 양적 확대, 질적 제고, 출신 국가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정책 시행 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조직 개편, 기존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법령 개정, 대학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오수연(2009)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유학 형태별, 지역별, 연도별로 개괄하였다. 연구자는 유학생 설문을 통하여 유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대학의 특성에 따라 유학생의 선택이 좌우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연구자는 유학 선택 시의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유치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유학생 관련된 연구는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에 따라 폭발적인 유학생 수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2009년 이후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 수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관련 연구 또한 유학생 숫자의 증가 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한국의 국제화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들의 경우 모두 국내 유학생의 양적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점에 수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연구들은 유학생 숫자 감소 등과 같은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2010년 이후 추진된 ‘유학생 질적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책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유학생의 만족도와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국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이 고등교육 국제화의 촉매제로서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 유학생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학생 정책의 목표와 세부 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2010년 이후 변화된 유학생 동향을 살피는 연구 또한 중요하다.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 주제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 2001-2011

대표적인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하나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은 2001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11년까지 Study Korea Project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정, 보완되어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추진 시기와 정책의 중심 목표에 따라 양적 확대 시기와 질적 관리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적 확대 시기: 2001-2007

양적 확대 시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추진된 모든 유학생 정책의 목표는 유학생 숫자의 증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주요 선진국의 유학생 수에 비하여 국내의 유학생 숫자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둘째, 국외에서 유학하는 내국인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적어 유학 수치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으로는 2001년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과 2004년 도입된 Study Korea 프로젝트가 있다. 양적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맞추어, 이 시기의 정책들은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2001)

한국 정부가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정책전환을 선포한 이후 최초로 수립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다. 정부는 급속한 세계화 추세 속에 각국이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경쟁을 벌이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와 유학 수치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 정책에서는 2000년 6천명 수준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10년까지 5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양적 확대 목표가 최초로 제시되었다.

유학생 숫자 증가를 목표로 하였던 이 정책은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국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인 요인을 투입하는 다양한 전략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방안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강의 확대와 전담교수 채용”, “장학금과 기숙사 신설”, “원스톱 상담지원체제 구축 및 입학 절차 간소화”, “유학생 실적과 대학 평가 연계” 등이 제시되었다. 이 정책은 더욱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유학생 정책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수립된 최초의 정책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먼저 효과적인 유치를 위한 국가별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정책의 비전이나 실질적인 실행 방법이 미흡하다. 또한 유학생의 유치에만 집중하여 입국 후 관리나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이 결여되었다.

나. Study Korea 프로젝트(2004) 및 세부 추진 계획(2005)

2001년 최초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이 수립된 이후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해외 인적자원 활용이 국가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드러냄으로써 정책의 비전과 당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정책에서 제시한 주요 중점과제는 “유학생 초청 사업 확대”, “해외 네트워크 형성”, “유학 홍보 강화”, “수학 및 생활환경 개선”, “한국어와 문화 보급”, “효율적 행정지원체제 구축”이다. 정부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한국을 알리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정책은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2001년 이후 추진되어 온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유치 확대 방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책의 목표 또한 유학생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문턱을 낮추는 전략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로 인하여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입국한 유학생에 대한 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2. 질적 관리 시기: 2008-2011

2007년까지 정부의 유학생 관련 정책은 유학생에게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 유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유학생 숫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각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고, 유학생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의 유치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전까지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며 유학생 규모의 확대를 지지하던 한국 정부는 유학생 선발, 입국 및 졸업 후 관리를 강화하여 제한적인 수용만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가.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 방안(2008)

2001년 한국 정부가 계획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는 목표가 2007년에 조기 달성됨에 따라 새로운 유학생 유치 목표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Study Korea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2008년 수립하였다. 이 정책에서는 유학생 유치의 새로운 목표로서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을 유치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하여 그동안의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정책은 유학생 양적 확대라는 기존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양적 확대보다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질적 관리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으로는 특화된 유학 프로그램 개발, 정부초청 장학금 확대, 유치국가 다변화, 유학생 선발 절차 강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공동 기숙사 건립 유도, 취업 및 귀국 후 지도 강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에서 제시하는 유학생 유치와 경쟁력 확보 방안들은 기존의 유학생 정책에서 이미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정책은 최초로 질적 성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였고 후속 정책들을 통하여 유학생 선발 및 관리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2009)

2009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2008년 발표된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 방안의 유학생 질적 관리 강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이 정책이 도입된 것은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에 따라 유학생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유학생 중도탈락(제적, 자퇴, 이탈)과 불법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유학생 유치 내실화”, “유학생 선발 체계화”, “유학생 수학 편의화”, “유학생 정책 기반화”의 4대 중점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정부는 유학안내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치박람회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전략적 유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선발 강화를 위해서는 입학 시 한국어 급수 제한, 일률적 학비 면제 금지 등의 권고 사항을 담은 유학생 선발·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수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별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 유학생 콜센터 운영, 기숙사 확충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정책 기반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유학생 관리 실태 조사, 유학생 지표의 공시 항목 반영, 전문기관 육성이 세부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 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유학생 유치를 권장하는 기존의 방침을 벗어나 표준화된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제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였다. 유학생 증가와 함께 유학생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후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 이 정책의 특징이다. 그러나 별도의 기준 없이 9년여 동안 유학생 유치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본격적인 대학 규제 및 관리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정책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2010)

정부는 이 정책 보고서를 통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9년까지 이루어진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차이나 특수”로 인한 중국 유학생의 갑작스런 증가로 때문이었다. 중국 출신 학생이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학생 시장은 중국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이 확충될 경우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 수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다변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유학생 유치 전략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 집중되었던 것을 파악하고, 다양한 국가로 유학생 유치 경로를 확대하여 유학 시장의 구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변화를 위한 전략 국가를 선정하였고 국가별로 한국 유학의 흡인, 추진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초청장학생의 지역 확대, 현지 상담센터 운영, ODA 및 국가 간 협력 연계 전략 개발, 정부초청 유학생 관리를 위한 Gate-way 대학 선정, 현지 Pre-school 및 현지 온라인 수업 등이 제시되었다. 유학생 다변화 중점 추진 국가로는 중동지역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아프리카 6개국(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중남미 4개국(칠레, 멕시코 등),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5개국(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이 선정되었다.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선진화 방안(2011)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2011)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9만 명 가까이 되었던 2011년, 정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대학 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의 목적은 유학생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학의 역량 평가를 위하여 정부는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제의 적합성과 대학의 국제화 기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제시하였다. 2011년 인증제 시범 사업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 국제화의 기반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외국인 교원 수, 해외파견 학생, 교환학생 수가 제시되었고, 유학생 지원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유학생 수 및 중도탈락률, 국

적 다양성, 숙소 제공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대학은 인증을 위하여 유학생 입학 절차, 학사 및 생활 관리, 지원 체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인증하고, 하위 5% 대학에는 관리 실태 현장 조사 및 비자발급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표 1〉 교육과학기술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2011) 평가 지표

연번	지표내용	배점(합계 100)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2.5
2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2.5
3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5
4	외국인 유학생 총원 수 및 비율	10
5	유학생 중도탈락률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건정성	20
8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10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권고 사항으로만 제시되던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기준이 제도적 제약을 통하여 엄격히 적용되었다. 이 정책은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생의 지원 및 입국 기준을 완화했던 기존의 정책 목표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정책의 시행 결과 2011년 말 우수 인증대학 10곳이 선정되었으며,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으로 평가된 17개 대학에는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전면 제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의 문턱을 낮추고 이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였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정책 방향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3.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특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은 2008년을 기준으로 그 목표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주요 유학생 정책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양적 확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정책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들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추진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여 유학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를 질적 관리 시기로 명명할 수 있다. 정부는 각 대학에 유학생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상황을 지표 제출, 인증, 비자 제한 등을 통하여 규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결과 이전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유학생 유치와 관리 활동은 정부의 통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IV.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 당면 문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숫자 확대 정책과 더불어 국내 유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여기서는 유학생 유치 현황과 당면 문제들을 유학생 수, 국적별 구성 비율, 유학생 불법체류율,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정서 및 취업률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통계자료가 지닌 특성을 보면 유학생 수와 국적별 비율을 통하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의 영향력과 유학생 유치 확대의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율 및 취업률,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정서 조사 자료를 통하여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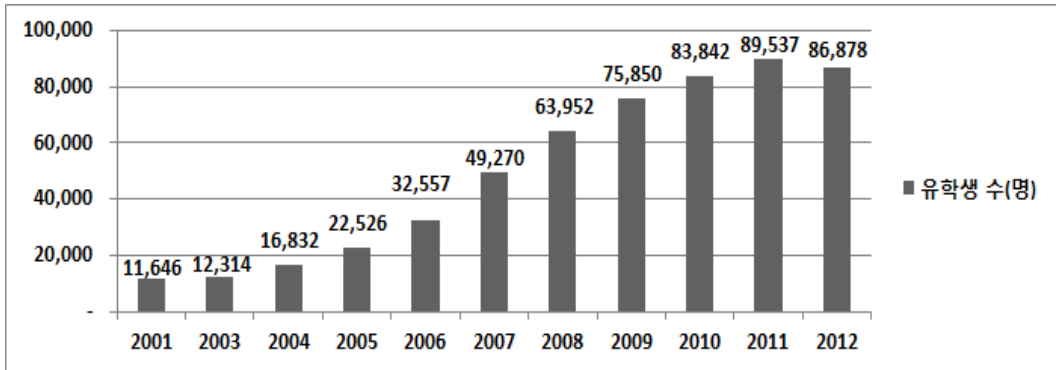
1. 유학생 수의 변화 및 증가율

2001년 11,646명이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²⁾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 89,537명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10년 간 7.68배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고점에 도달한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유학생 수 증가는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 시행 시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 유치 규모의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정부 주도적 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에는 유학생 수의 증가가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양적 확대보다 질적 관리에 주력하였던 2008년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크게

2)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학부 및 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 유학생, 한국어 연수생, 기타 방문 학생(교환학생, 단기 교류 학생 등)을 포함하였음.

둔화되었다. 이후 유학생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던 2011년에는 유학생 증가율이 -3%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여 전체적인 유학생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출처: 교육통계(2001-2012)

[그림 1] 2001-2012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숫자 변화.

연도별로 유학생 숫자의 증가율을 구분하여보면 양적 확대에 주력한 시기와 질적 관리에 주력한 시기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7년의 유학생 증가율은 37-51%이지만, 2008년 이후에는 각각 30%, 19%, 11%, 7%로 그 비율이 매년 크게 감소하였다.

〈표 2〉 2003-2012 연도별 유학생 수 증가율 변동 현황

구분	양적 확대 시기					질적 관리 시기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6%	37%	34%	45%	51%	30%	19%	11%	7%	-3%

이러한 유학생 증가율 둔화와 유학생 숫자 감소에는 여러 대내외적 영향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개인이 유학 국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개인의 경험에서 축적된 국가 선호도 및 평판, 대외적 위치, 국제 정세 변화,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유학생 숫자의 증감 추이는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 방향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 방향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침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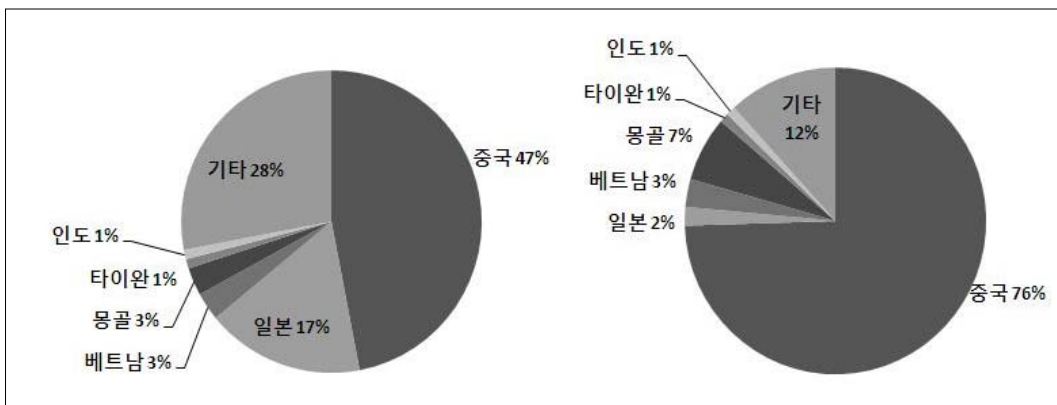


출처: 교육통계(2003-2012)

[그림 2] 2003-2012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변화.

2. 국가별 유학생 비율 추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 출신 국가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중국 등 아시아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국내에 등록된 유학생 및 언어연수생 7,397명 중 아시아 국가 출신자는 83%인 6,109명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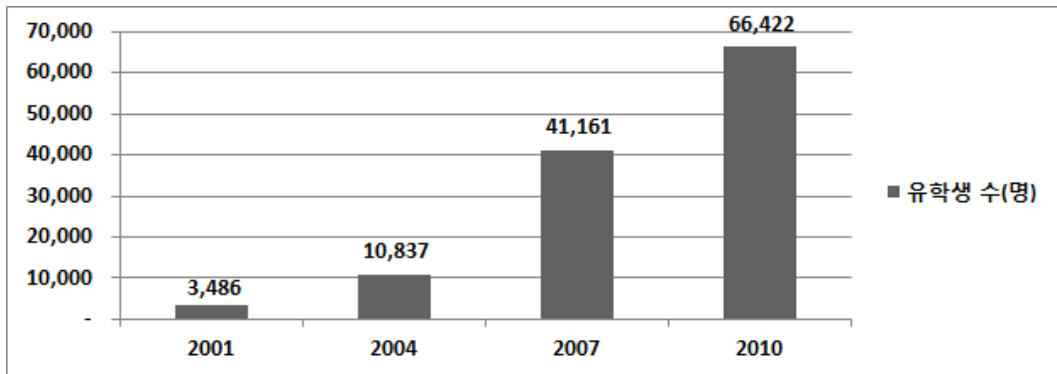
출처: 출입국통계연보(2001, 2010)

[그림 3] 2001년(좌) 및 2010년(우) 국내 유학생 국가별 비율 비교.

다. 이후 유학생 숫자의 증가와 함께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의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그 비율이 89%, 2007년에는 96%, 2010년에는 95%까지 도달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학생 숫자가 7.19배 증가하였음을 감안하여볼 때,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아시아 지역 출신 학생의 폭발적인 유입에서 비롯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국가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유학생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 비율의 압도적인 증가를 확인하게 된다. 앞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전체 유학생에서 중국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76%까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유학생 숫자가 72,196명 증가하였음을 생각할 때 국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는 중국 출신 학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유학생¹⁾의 숫자 변화를 나타낸 [그림 4]는 중국 유학생의 증가가 한국 전체 유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잘 보여준다. 2001년 중국 출신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47%인 3,486명에 불과하였지만, 2004년에는 그 숫자가 전체 유학생의 64%인 10,837명이었으며, 2007년에는 전체 유학생 수의 78%를 차지하였다. 중국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 숫자의 감소는 전체 유학생 숫자의 감소와 직결된다. 실제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숫자가 3,774명 감소한 2012년, 전체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3,064명 감소하였다. 유학생 중 중국 출신자의 비율이 76%까지 증가한 2010년 이후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유학생 수의 증감은 아시아, 특히 중국 유



출처: 출입국통계연보(2001, 2004, 2007, 2010)

[그림 4] 2001-2010 국내 중국 유학생 숫자 변화.

1) 이 연구에서는 출입국통계연보 자료 중 D-2(유학) 및 D-4(연수)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등록된 중국 출신자의 숫자를 파악하였다. 유학생에 대한 구분 기준에 따라 연구별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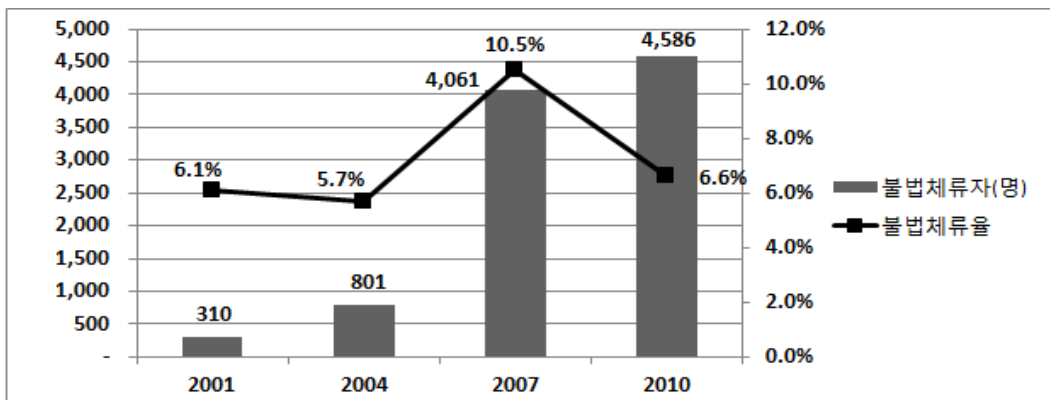
학생 숫자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이와 같은 중국 및 아시아 편중 구조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유학 동향 변화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유학생 관련 주요 당면 문제

가. 유학생 불법체류

유학생 불법체류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법을 지키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유학생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310명 수준으로 전체 유학생의 6.1%에 불과하던 유학생 불법체류는 2007년 4,061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유학생의 10.5%에 해당되는 수치로 10명 중 1명의 유학생이 한국 출입국 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

여러 불법체류 유형 중에서 유학생의 불법취업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2009년에는 50여개 대학 소속 유학생 219명이 유학 비자를 유지한 채 공장 등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불법으로 근로하다 적발되었다(매일신문 보도자료, 2009.8.4.). 이들은 중개업자에게 일자리와 대학을 알선 받았으며, 학교 수업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한 전문대학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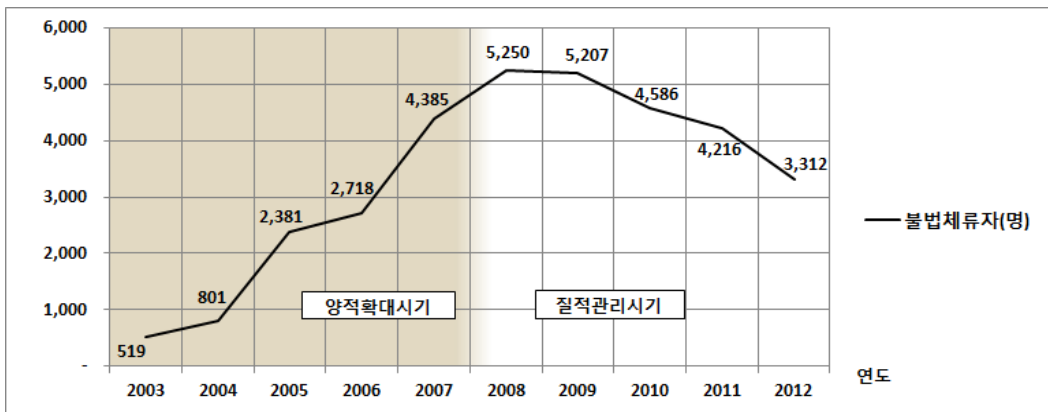
출처: 출입국통계연보(2001, 2004, 2007, 2010)

[그림 5] 연도별 유학생 불법체류자 수 및 불법체류율.

학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 대학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서 근로하는 이들 유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고 수업일수를 조작하였다(YTN보도자료, 2009.10.19.). 이처럼 유학생 유치 확대가 적극적으로 장려됨에 따라 유학생 체류자격 취득이 용이하게 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이것을 불법 취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방편으로 악용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와 사례를 통하여 정부의 양적 확대 정책으로 인한 유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가 한국고등교육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급격한 유학생 수 증가의 이면에는 유학 본연의 목적인 학업을 소홀히 한 채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2011년 이루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의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로 인하여 신규 입학 유학생 중 48.57%가 불법체류를 하는 사례도 드러났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상당수가 입학 후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양적 확대에만 주력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그 실행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달리 불법체류자를 다수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유학생 선발 절차와 적응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불법체류에 있어서도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규과정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숫자를 확인하여 보면 양적 확대에 주력한 2007년까지의 시기에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매년 증가한 반면, 질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던 2008년 이후에는 그 수가 매년 감소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출처: 출입국통계연보(2003-2012)

[그림 6] 2003-2012 연도별 국내 정규과정 유학생 불법체류자 현황.

이를 통하여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유학생의 불법체류 감소와 안정적인 유학생 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유학생 관리 정책은 유학생의 바람직한 학업 수행과 생활 적응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이다.

나. 유학생 반한감정

국내 체류 유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갖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증가하는 유학생 숫자에 걸맞은 효율적인 지원 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유학생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타적 성향 또한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체류 유학생들의 반한(反韓) 감정은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2000년대 후반 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0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 중 상당수가 유학 후 한국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내 5개 권역에 분포한 15개 대학의 중국 유학생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한 정서에 대한 실태 조사 설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반한정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41%가 반한 정서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 유학 전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응답자의 30%가 유학 후 반한 정서를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생이 반한 정서를 갖게 되는 데에는 차별, 학업, 생활 부적응, 진로 불투명, 대학의 무분별한 유치 등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Sunday(2011. 2.6.)에 따르면 1) 한국어 수준 미달로 인한 수업 부적응, 2) 한국 학생과의 거리감과 차별, 3) 유학생 유치를 비즈니스로 보는 대학, 4) 열악한 복지 수준, 5) 학비조달을 위한 불법 취업, 6) 한국 취업의 어려움 등이 유학생의 반한 정서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다룬 경인일보 보도자료(2012.9.26.)에서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나 교수, 강사와의 교류가 없이 대학 내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유학생들은 유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다.

다. 유학생 취업률 저조

졸업한 유학생의 불확실한 진로 문제도 한국 유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무분별한 유학생 수 확대와 유학생에 대한 호의적인 수용 환경의 부재는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마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자료(2013.6.5.)에 따르면 매년 1만 명가량

배출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졸업 유학생 중 100여 명만이 국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그 출처 또한 불분명한데, 국내에 취업하는 유학생의 숫자가 극히 미미한데다 각 대학이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졸업 이후의 유학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서영인 외, 2012). 그만큼 한국 내에서 졸업 후 유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선택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함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학생 채용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학생 중 56.4%가 졸업 후 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김우중(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1,003개사 중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은 11.8%에 불과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10.4%만이 향후 유학생 신규 채용 확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일본 유학 후 일본 내 기업에 취업한 유학생 수가 8,756명, 취업률이 24.1%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국내 기업이 유학생 채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유학생의 국내 취업 희망 수요와 국내 기업의 일자리 공급 사이의 괴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유학생 숫자는 크게 증가하였던 반면 유학생이 유익한 유학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적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는 폭넓게 제공되지 못하였다. 급격한 양적 확대에 비하여 유학생을 수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있지 않았기에 국내의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 생활에서 낮은 만족감을 가졌을 것이다.

V. 미래 유학생 관리 정책 수립 방향

한국의 유학생 유치 현황과 유학생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한국 유학생 정책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유학생 정책 방향에 따라 유학생 숫자 및 불법체류 유학생 숫자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력에 비하여 기존의 유학생 정책들은 빈번하게 수정되고 일관성 없이 전개되었다. 단기간의 성과 달성과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유학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5-6년 후의 목표만을 제시하였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10년 후, 20년 후 한국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유학생 정책 수립 시에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

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 유치 규모의 확대와 유학생의 질적 관리 강화라는 상반된 목표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수립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유학생 규모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생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 유학 국가로서 한국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특화시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의 유치나 국내 유학생의 관리에만 집중하여 유학 국으로서 한국이 갖는 강점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지니는 강점이 유학생 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IT기술, 생명산업, 문화 콘텐츠 등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유학생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학생 정책 수립 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상황으로 인한 유학생 유치의 한계를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의 대부분이 영어권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별 유학 점유율이 변동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외적 위치와 유학생 유치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 세계 유학생의 52.7%가 아시아지역 출신자라는 점과 주요 영어권 국가에 유학생의 35.6%가 집중되었음(OECD, 2013)을 파악하여 유학생 유치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국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V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미래 유학생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 분석 방법을 활용한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의 목표, 주요 내용 및 시행 방법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시행 결과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의 상황에 맞는 미래 유학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노력은 해외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1년 최초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전환을 선포하며 유학생 유치 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한국 정부는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유학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 숫자의 양적 확대에 주력한 2001년부터 2007년의 시기와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집중한 2008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적 확대시기에 유학생 정책의 기조는 더 많은 수의 유학생이 한국을 찾도록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질적 관리시기에 유학생 정책 방향은 선발 조건 강화, 지원체제 구축 등 우수 학생 선발과 적응을 위한 관리에 집중되었다.

유학생 유치 정책의 도입과 함께 국내 유학생 유치 현황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지난 10년간 유학생 수는 89,537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한국 내 유학생 숫자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던 기존의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질적 관리로 선회하였던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9만 명에 가까운 국내 유학생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 출신자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유학생 숫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유학생 유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한국 내 유학생 유치 현황의 특징이다.

유학생 유치에 집중된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유학생의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유학생의 불법취업 등 유학생의 질적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유학생의 학업 수행과 유학 목적에 대한 적합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취업하는 유학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 또한 갖추어지지 않아 유학 후 유학생이 한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학생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평가 절하로 인하여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가능성 역시 희박한 상황이다. 뒤늦게 정부는 양적 성장을 위하여 추진되던 유학생 유치 정책 대신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국내의 유학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한국 유학생 정책은 한국의 유학생 유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유학생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유학생 정책이 국내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유학생 유치 규모의 확대와 적절한 유학생 관리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수립 또한 중요하다.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유학의 특화 전략을 통하여 차별성을 갖춘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대외적 위치로 인한 유학생 유치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다 체계적인 유학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한국 유학 시장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학 목적지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인일보(2012.9.26.). 중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http://www.kyeongin.com/news>에서 2014.11.17 인출.
- 교육인적자원부(200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5). Study Korea 프로젝트 세부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8).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 구자익(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4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양선(2009). 대학의 국제화 전략과 국제화 성과에 관한 분석. *고등교육연구*, 16(1), 61-83.
- 김우중(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0(17), 1-29.
- 김화영(2005).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방안.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매일신문(2009.8.4.).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 2억여 원 쟁겨. <http://www.imaeil.com>에서 2014.11.17 인출.
- 박소영(2009).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시홍(2011). 한국 대학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인·김미란·김은영·채재은·윤나경(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수연(2009).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2013.6.5.). 외국인 유학생 9만 명…무너지는 코리안 드림. <http://media.daum.net>에서 2014.11.17. 인출.
- 중앙Sunday(2011.2.6.). 중국 유학생은 왜 반한 감정 갖게 되나. <http://sunday.joins.com>에서 2014.11.17 인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

입국통계연보.

통계청(2013). 외국인 고용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통계.

YTN(2009.10.19.). '불법취업' 외국인 학생 등 28명 입건. <http://www.ytn.co.kr>에서 2014.11.17
인출.

Altbach, P. G., & Knight, J. (200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3), 290-305.

Nellis, J., & Slattery, D. (2013). Demographic trends and the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Emerging challenges and prospects. In Ahmann, A., & Ebersberger, B. (Eds.), *Universities in change: Manag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age of globalization*(59-74). New York, NY: Springer.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Knight, J. (2004). Internationalization remodeled: Definition, approaches, and rational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8(5), 5-31.

Wilkins, S., & Huisman, J. (2011). International student destination choice: the influence of home campus experience on the decision to consider branch campuses. *Journal of Marketing for Higher Education*, 21(1), 61-83.

〈Abstract〉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tudents Recruitment and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Sohyeon Bae

Hoisoo Kim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se the international students policies of Korean higher education from 2001 to 2011. This period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policies implemented: the quantitative expansion period and the qualitative supervision period. During the quantitative expansion period (from 2001 to 2007),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policy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ttracting policies,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s been seen within a decade. In the qualitative supervision period (from 2008 to 2011), the Korean policies for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were changed to strengthen the control over education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 was because of the uprising social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due to the lack of proper supervision systems for them. Most of these matters originated from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focusing only on quantitative expansion rather than on qualitative managemen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ntensify the control over international students, the influx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 reduced gradually.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Key words: *internationalization policy,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higher education*